

앙트완 베르만과 프랑스 번역학 장의 탄생: 번역사회학적 분석*

이 영 훈
(고려대)

1. 서론

올해가 프랑스의 번역가이자 번역학자인 앙트완 베르만(Antoine Berman 1942-1991)이 타계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49세의 나이에 뇌종양으로 돌아간 베르만은 1990년대 서구 번역학에 ‘윤리적 전환(virage éthique)’¹⁾을 가져온 인

* 본고는 한국번역학회 2021년 가을 학술대회에서 동일 제목으로 기초강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본 강연의 토론을 맡아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이향교수와 본 논문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않은 세 분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1) Godard 2001: 55, Boulanger 2012: 242. 앤소니 핼(Anthony Pym)의 *Pour une éthique du traducteur*(1997)와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의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1998)가 베르만의 영향 하에 윤리적 전환을 대표하는 연구들이다.

물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타자를 타자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윤리적 행위이며, 낯선 언어와 문학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언어 공간 안에 수용하는 것이 번역의 본질이라는 그의 주장은 폴 리쾨르(Paul Ricoeur),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 등의 ‘환대의 철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본고에서 베르만이 번역학자로서 활약한 1980년대를 중심으로 프랑스 번역학의 형성 과정, 즉 학문적 성립 과정과 베르만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본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브 강비에(Yves Gambier)가 2007년 논문에서 ‘번역학의 사회학(socio-traductologie/Sociology of Translation Studies)’을, 앤드류 체스터만(Andrew Chesterman)이 2009년 논문에서 ‘번역가학(Translator Studies)’을 제안한 데서 비롯된다. 사실, 강비에와 체스터만의 제안들은 2000년 초부터 본격화된 번역사회학 연구의 일환으로, 번역을 사회적 산물, 즉 문화상품으로 보거나 번역물의 생산 공정(production process)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을 보완하면서, 번역가의 사회적 정체성과 실천, 번역학의 제도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번역, 번역가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 외에도, 번역사회학의 전체 지형도 내에 번역학자의 사회적 정체성 및 실천, 그리고 번역학이라는 사회제도에 대한 연구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체스터만과 강비에가 제안한 명칭들의 연장선상에서, ‘번역학자의 사회학(sociology of translation scholar)’과 ‘번역학의 사회학(sociology of translation studies)’이 각기 일반 번역사회학의 하위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보며, 본고에서 번역학자 앙트완 베르만을 중심으로 프랑스 번역학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의 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 그의 핵심 개념들인 장(champ/field)²⁾과 아비투스(habitus) 등을 활용할 것이다. 이는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이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해 균형 잡힌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Tyulenev 2014: 171)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번역사회학의 토대가 되는 현대 사회학 이론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적용의 대상(Buzelin 2013: 187)이 되

2) 본고에서 활용되는 부르디외의 사회학 용어들에 대한 원어 표기는 프랑스어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을 위해 프랑스어 용어와 그 영어 대역 표현을 병기하기로 한다.

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디외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프랑스 ‘번역학 장(field of translation studies)’의 탄생 및 형성과정을 왜 베르만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1972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3회 응용언어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제임스 홈즈(James S. Holmes)가 행한 학술발표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³⁾가 분과학문(academic discipline)으로서 번역학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학술발표에서 홈즈는 서구 번역학의 명칭과 그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이 이후 1976년 벨기에 뤼벤에서 열린 서구 번역학의 창립 학술대회⁴⁾에서 그대로 비준된 바 있다. 한편, 프랑스어권에서는 조르주 무냉(Georges Mounin)을 번역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혹은 프랑스 번역이론의 상징적 아버지로 보는 경향⁵⁾이 있어 왔다. 그런데 베르만은 무냉의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 *Les problèmes théoriques de la traduction*』⁶⁾(1963)이 결코 프랑스 번역 사상의 최고봉으로 해외에 알려저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며, 굳이 번역에 대한 프랑스적 성찰의 상징적 기원을 꼽자면 발레리 라르보(Valery Larbaud)와 그의 『성 히에로니무스의 가호 아래 *Sous l'invocation de saint Jérôme*』(1946)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994: 247). 더구나, 베르만 사후, 바로 그가 (프랑스) 번역학의 탄생과 형성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큰 몫을 하였다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었다. 알렉시 누스(Alexis Nuss)는 베르만의 저작들을 프랑스어권 번역학의 토대이자 젖줄로 강조한 바 있으며(2001: 9), 클레르 르메르(Claire Lemaire)는 베르만

3) 본 발표문은 *Indi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의 13권(1987)과 *Rodopi*에서 출간된 홈즈의 논문 모음집 *Translated!*(1988)에 각기 약간씩 다른 판본으로 실렸다.

4) Colloquium “Literature and Translation” (Katholieke Universiteit te Leuven, Leuven, 27-29 April 1976). 본 학술대회의 결과는 1978년에 다음과 같이 출간되었다. James S. Holmes, José Lambert & Raymond van den Broeck (eds.)(1978), *Literature and Translation: New perspectives in literary studies*, Leuven: ACCO.

5) 특히 미셸 발라르(Michel Ballard, 2004: 51), 장-르네 라드미랄(Jean-René Ladmiraal, 1995: 38, 2005: 147)과 셰리 사이먼(Sherry Simon 1989: 157) 등이 이같은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6) 겹낫표 안에 한국어 제목과 원서명이 병기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이 출간된 서구 저술을 나타내며, 병기된 한국어 제목은 출판된 한국어 번역서의 제목 그대로이다.

을 홈즈와 마찬가지로 서구 번역학의 창시자로 제시하였다(2017: 36). 또한 강비에(Gambier 2007: 209)는 베르만이 번역학의 과제들과 번역학 담론들을 위한 지표들을 거의 처음으로 제시하였다고 밝혔고, 마리본 브와소(Maryvonne Boisseau 2009: 19)는 프랑스의 번역학 담론들 가운데 베르만이 발전시킨 몇가지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수잔 픽포드(Susan Pickford 2013: 104)와 엘리자베트 라보-올레옹(Élisabeth Lavault-Olléon 20187)은 번역학이 독자적 학문으로 발돋움하는데 베르만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 우리는 위의 주장들을 바탕으로 프랑스 번역학의 학문적 형성 과정에서 베르만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과연 베르만 사후 오늘날 프랑스 번역학의 제도적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프랑스에는 두 개의 번역학 관련 학회가 설립되어 있고, 다수의 전문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다. 우선, 1952년에 프랑스번역가협회(Société française des traducteurs, 약칭 SFT)가 서구 최초의 번역 관련 학술지⁸⁾라 할 수 있는 *Traduire*를 창간한 이래, 파리3대학 영어권연구소(Institut du Monde Anglophone)가 1987년부터 *Palimpsestes*를, 프랑스문학번역가협회(Association des traducteurs littéraires de France, 약칭 ATLF)가 1991년부터 *TransLittérature*를, 파리3대학 통번역대학원(École Supérieure d'Interprètes et de Traducteurs, 약칭 ESIT)이 한국의 국제회의통역학회(한국통역번역학회의 전신)와 공동으로 2003년부터 *Forum*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통번역 박사과정이 1974년 ESIT에 설치되어 1978년 첫 박사가 배출된 이래, 2005년에 번역실천/이론연구학회(Société d'Études des Pratiques et Théories en Traduction, 약칭 SEPTET)가 번역 실무자와 번역 연구자들을 망라하려는 의도에서 설립되었으며, 2014년에 프랑스번역학회(Société Française de Traductologie, 약칭 SoFT)가 프랑스의 번역 학자들을 대상으로 번역학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창립되었다. 두 학회는 2007년 창간된 SEPTET의 학회지 *Des mots aux actes*를 2014년부터 공동으로 발간

7) 본 논문은 온라인 학술지에 실린 까닭에 해당 페이지를 특정할 수 없다.

8) 국제번역가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traducteurs, 약칭 FIT)의 기관지 *Babel*과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의 번역가 대상 학술지 *Meta: journal des traducteurs/Translators' Journal*은 모두 1955년에 창간되었다.

하고 있으며, 2017년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번역학(La traductologie: une discipline autonome)’을 주제로 제1회 세계번역학 대회(Congrès mondial de traductologie)를 파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번역학의 제도화 측면에서 박사과정의 설치 및 학술지의 발간은 서구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전문학회의 창립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늦었음이 확인된다⁹⁾.

본 연구의 본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우리 연구의 이론적 토대인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과, 번역학을 포괄하는 학술장 이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이어서 베르만의 생애와 사회적 정체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번역학 장의 형성과정과 베르만의 역할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 우리는 역시 부르디외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자신에 대한 성찰을 시도할 것이다.

2. 부르디외의 성찰의 사회학과 학술장 이론

사회학자들은 농담 삼아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를 연구하는 것은 마치 버스 안에 타고서 이 버스를 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Tyulenev 2014: 81). 그런데 이처럼 모순된 상황을 인지한 것처럼 말하는 사회학자들이 간혹 본인들 스스로 해당 사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마치 사회 ‘밖에서’ 사회를 관찰하고 분석한다는 착각에 빠진다고 부르디외는 비판하였다. 따라서 사회학 연구가 진정한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한 사회를 관찰하고 기술하려는 사회학자 자신의 현실 인식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한다¹⁰⁾는 것이 부르디외의 입장이며, 이런 의미에서 ‘성찰(réflexivité/reflexivity)’은 부르디외식 사회학 연구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9) 서구 번역학의 학술적·제도적 변천사와 관련해선 줄고(2013)를 참고하기 바란다.

10) 따라서 부르디외는 사회학자들이 자주 동원하는 참여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이나 외적 관찰(external observation) 방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연구자의 이해관계, 선입견, 이론적 선택 등을 분석하는 ‘참여 객관화(participant objectiva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Tyulenev 2014: 182-183).

이제 성찰의 사회학으로서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¹¹⁾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르디외는 사회를 단순한 개인들의 결사 내지 총합이 아니라, 개인 상위에 존재하여 이들의 사유와 활동을 지배하면서도 개인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실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사회는 단 하나의 체계 내지 구조를 이루기 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pratique/practice*)의 공간, 즉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따라서 관찰 가능한 활동의 공간인 장(*champ*, 마당 場, 영어 *field*)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부르디외의 입장이다. 상호 분리되거나 교차되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각각의 장은 공통적으로 ‘권력장(*champ du pouvoir/power field*)’의 영향 하에 놓여 있으며, 그 결과 각 장의 내부에는 구성원들 간의 경쟁을 통한 지배-피지배의 서열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장 내의 서열 관계는 장 내 행위 주체(*agent*)들이 보유한 각종 자본(*capital*)의 크기를 바탕으로 하며, 경제자본(돈, 각종 재화), 사회자본(출신, 인맥), 문화자본(지식, 취향), 상징자본(학력, 자격, 명성, 권위) 등은 바로 장의 구성원들이 서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다.

한편, 각각의 실천 장이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필요한 요소들로는 노모스(*nomos*), 로고스(*logos*), 독사(*doxa*), 일루시오(*illusio*) 등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르디외가 라틴어에서 차용한 이 개념들¹²⁾ 중 노모스는 장의 운영에 필요한 법, 관례, 제도 등을, 로고스는 장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 및 어법을, 독사는 장의 구성원들이 장 자체와 장의 운용에 대해 갖는 비교적 공통된 생각인 통념을 각기 지칭한다. 그리고 일루시오는 개개인을 장의 구성원이 되도록 유인하여, 장 내 실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만들며, 장의 운용 규칙을 준수하면서 남보다 많은 자본을 획득하여 장 내 서열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이끄는 ‘환상’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 부르디외는 인간이 사회적 실천과 연결될 때 본질적으로 이해타산적(*intéressé/interested*)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은 다양하게 구조화된 실

11) 전체 서구 사회학의 맥락에서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에 대한 입문을 위해서는 세르게이 툴레네프(*Sergey Tyulenev*)의 번역사회학 개설서(2014, 170-184)를, 부르디외식 번역사회학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는 즐고(이영훈 2021)를 참고하기 바란다.

12) 부르디외가 사용한 각종 개념들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2020년에 출간된 *Dictionnaire international Bourdieu*(부르디외 국제사전)에서 찾을 수 있다.

천 장들에 뛰어 들 때마다 마치 게임에 참가하여 상대방 보다 많은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승리하기를 갈구하는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 장에서 벌어지는 실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주체들과 관련된 특성들로 부르디외는 *아비투스(habitus)*, *코나투스(conatus)*, *헥시스(hexis)* 세 가지를 꼽는다. 라틴어 및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이 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아비투스*는 사회적 실천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체화된 성향으로 가정 및 학교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1차 *아비투스*와 사회 내 구조화된 실천 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2차 *아비투스*로 나누어진다. 각 장 내에서 개인 주체를 통해 발휘되는 *아비투스*¹³⁾는 이 주체가 장에 적응하며 실천을 통해 보다 많은 자본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반이면서, 주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장의 내부 구조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코나투스*는 각 주체가 가정 또는 실천 장 내의 특정 인물을 전범 내지 반면교사로 삼아 노력하는 성향을 말한다. 끝으로, *헥시스*는 개인에 내면화된 기질인 *아비투스*가 외부로 발현된 결과인데, 이것은 우리 몸과 관련된 ‘스타일’로서 몸짓, 자세, 패션, 문체¹⁴⁾ 및 라이프 스타일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번역학 장은 부르디외가 말하는 ‘*학술장(champ scientifique/scientific field)*’의 하위장에 해당된다. 이제부터 그의 사회학 이론 내에서 학술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부르디외는 1976년 발표한 논문¹⁵⁾에서 학술장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집약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먼저 학술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선행 투쟁들에서) 확보된 위상들 사이의 객관적 관계 체계로서 학술장은 전문 역량이자 동시에 사회 권력으로 정의될 수 있는 학문적 권위의 독점, 아니 차라리 학문과 관련하여 적법하게(다시 말해, 허용된 방식으로,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역량으로 이해되는, 특정 행위 주체에게 사회적으로 인정된 학문적 권한의 독점을 놓고 경쟁적으로 투쟁하는

13) 자주 오해되는 바인데, 집단의 *아비투스*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르디외는 근본적으로 *아비투스*를 개인적 특성으로 간주하며, 대신 사회 내 계급과 관련된 공통의 성향인 계급적 *아비투스(habitus de classe/class habitus)*를 예외로 인정한다.

14) 번역가의 문체는 그의 *아비투스*가 번역 과정에 투사되어 나타나는 *헥시스*이다.

15) “Le champ scientifiqu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2(2-3), 88-104.

장소(즉, 게임 공간)이다.¹⁶⁾

부르디외가 학술장을 ‘투쟁의 장소’라고 정의할 때, 그는 단순히 ‘학문 공동체’가 시사하는 평온한 이미지, 즉 이곳에서는 아이디어들 간의 순수하고 완벽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이 경쟁이 진정한 아이디어가 갖는 본연의 힘에 의해 확실하게 해소된다는 통념과 절연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학술장의 운용이 특별한 형식의 ‘이해관계’를 산출하거나 전제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각종 학술적 실천은 다른 사회적 실천 장들에서 산출되고 요구되는 다양한 이해타산 방식들과 비교해볼 때 오로지 ‘사심 없는’, 즉 온갖 이해관계를 초월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런데 부르디외의 시각에서 볼 때, 학술장은 학문적 지배를 위한 정치적 투쟁의 장소로서 각각의 연구자에게 그가 학술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례하여 이에 걸맞은 문제들과 방법들을 할당하는 곳이다. 이 연구 문제들과 방법들은 이른바 ‘학문적 전략들’인데, 이 전략들이 학술장을 이루는 정치적·학문적 위상 체계들에 따라서 명백하게 혹은 객관적으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전략들이기도 하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학문적 권위는 장을 구성하는 메커니즘들에 대한 권력을 담보하는 특별한 사회 자본으로, 이러한 학문적 권위를 얻기 위한 투쟁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인다. 첫째, 학술장이 자율화되면 될수록 학술장의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경쟁자들을 유일한 ‘고객’으로 삼게 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고도로 자율적인 학술장 내에서 특정 ‘생산자’가 자기 ‘상품들’의 가치(평판, 명성, 권위, 권한 등)를 인정받게 되는 것은 바로 ‘동료 생산자들’에 의해서인 것이다. 더구나 이 동료들은 토론이나 검토 없이는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길 도무지 꺼려하는 경쟁자들이기도 하다. 둘째, 학술장 내의 생산자들이 자기 ‘상품들’의 가치와 합법적 ‘생산자’로서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벌이는 투쟁이 노리는 것은 바로 자신만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부합되도록 해당 학문의 정의¹⁷⁾를 부과할 수 있는 권력이다. 왜냐하면 이 권력 덕분에 학술장의 ‘생산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제도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학문적 역량들에 최고의 학술적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합법적으로 학술장 내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유지할 수 있기

16) Bourdieu 1976: 89. 강조는 필자의 몫이다.

17) 무엇이 학문적 문제이고, 방법이며, 이론인지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이다. 셋째, 학술장 내에는 학문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심급들에 대해서 이 심급들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상위 심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학문적 정당성의 요구들도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명하는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상대적 힘의 차이에 의거해서 그 합법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학술장 내에서 학문적 정당성의 판결 기준 및 서열화의 원리에 대한 정의 자체가 투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학술장 내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 심판이자 동시에 선수로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다. 넷째, 사용 가능한 모든 학문적 ‘생산 수단들’을 투여하면서 전체 경쟁자들 간의 객관적 협업을 통해 산출되는 학문적 작업의 ‘생산물’과 그에 따른 ‘외적 수익들’(경제적 또는 순전히 정치적 보상들)은 학술장 내의 주체들 간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없다. 따라서 학술장은 항상 특정 자본을 불균등하게 보유한 행위 주체들 간의 다소 불평등한 투쟁의 장소인 셈이다.

3. 베르만의 생애와 사회적 정체성

앙트완 베르만의 생애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오로지 위키백과 내 베르만 항목의 생애란, 베르만 사후 1992년 시 전문지 *Po&sie*에 실린 베르만의 논문에 덧붙여진 생애 요약, 역시 1992년 캐나다 퀘벡주 통번역사 동업조합에서 발간하는 잡지 *Circuit*에 실린 안니 브리세(Annie Brisset)의 추모의 글, 그리고 베르만의 유작 *Pour une critique des traductions: John Donne*(번역비평을 위하여: 존 던)을 영어로 번역한 프랑수아즈 마사르디에-케니(Françoise Massardier-Kenney)가 역자 서문에서 제공한 전기 내용 등을 통해 비교적 단편적인 정보들만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었다. 다행히 브라질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Tradução em Revista*가 베르만 작고 30주년 기념 특별호(2021, 30)에 게재한 미망인 이자벨 베르만(Isabelle Berman)의 글 “Pour Antoine Berman, 30 ans après(앙트완 베르만을 위하여, 30년 후)” 덕분에 우리는 그의 생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글에 포함된 “Un chemin commun(함께 한 길)”이라는 미망인의 회고담과 “Au début était le traducteur(시초에 번역가가 있었다)”라는 베르만의 자전적 기록¹⁸⁾은 베

르만의 전기적 사실에 대한 귀중한 자료 역할을 한다.

3.1 베르만의 생애

이상에서 언급된 각종 전기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의 생애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앙트완 베르만은 1942년 6월 24일 프랑스의 리모주(Limoges) 근처 아르장통-쉬르-크뢰즈(Argenton sur Creuse)라는 작은 마을에서 폴란드계 유대인 아버지와 유고슬라비아 출신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아버지의 유대 혈통 때문에 전 가족이 프랑스 중부 베리(Berry)에 숨어 지냈으며, 전쟁 후에는 파리 근교에 정착하였다. 베르만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신발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만은 파리 교외 부르주아들의 주거지에 위치한 카톨릭 계통의 몽모랑시 고교(Lycée Montmorency)를 졸업한 후, 소르본느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1967년 레바논 출신 푸아드-엘-에트르(Fouad-el-Etr)와 시 전문지 *La Délirante*(라 델리랑트)를 창간하였다. 계속해서 독일 낭만주의 시학에 관한 박사논문을 준비하던 중, 그는 소르본느대학교 교양학부에서 만나 결혼하게 된 아르헨티나 출신 연극 연출가 이자벨 가르마(Isabelle Garma)를 따라 1971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였다. 이로 인해 박사논문 준비를 중단한 그는 그곳에서 5년간 체류하며 부인의 연극 활동을 돕거나 창작에 몰두하였다. 이후 파리로 돌아온 베르만은 아르헨티나에서 발견한 중남미 작가들의 작품 등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1981년 파리8대학교에서 앙리 메쇼닉(Henri Meschonnic)의 지도 하에 ‘La théorie de la traduction chez les romantiques allemands(독일 낭만주의자들의 번역이론)’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본 학위논문은 1984년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독일 낭만주의

18) 후술하겠지만, 이 글은 그가 1991년 작성한 ‘학위논문 지도를 위한 교수자격 심사용 종합보고서(Document de synthèse en vue de l’habilitation)’의 전반부에 해당된다. 이 글의 후반부는 “« De quoi le traduire est-il, en son fond, expérience? » Les tâches de la traductologie(번역하기는 그 근본에 있어서 무엇이 경험인가? 번역학의 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Po&sie*에 실렸으며, 두 글에서 누락된 일부 내용은 1996년에 발표된 에반겔로스 비트소리스(Évanghélós Bitsoris)의 추모 논문 “Le projet de traductologie d’Antoine Berman(앙트완 베르만의 번역학 기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와 번역 *L'Épreuve de l'étranger: Culture et traduction dans l'Allemagne romantique*』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그는 자크 데리다 등이 1983년 설립한 파리 국제철학학교(Collège international de philosophie)에서 번역 연구과정의 책임을 처음으로 맡아 1984년부터 1989년까지 번역학 강좌를 주관하였다. 그리고 역시 1984년에 그는 프랑스 정부가 추진한 ‘국립전문용어/번역연구원(Le centre national de la terminologie et de la traduction)’ 설립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이 프로젝트는 자크 아미요 센터(Centre Jacques Amyot)라는 비영리단체(Association)의 설립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는 1987년부터 홀로 이 센터를 이끌며¹⁹⁾, 산업,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번역, 전문용어, 편집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번역 정책 업무를 열성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1991년 베르만은 마침내 자크 아미요 센터의 활동을 접고²⁰⁾, 대학에서 번역학 강의 및 연구를 이어나가고자 그간의 업적들과 활동들을 바탕으로 대학교수 자격 심사를 준비하였는데, 갑작스레 뇌종양으로 투병하게 되었고, 유작 『번역비평을 위하여』를 병상에서 집필하면서 1991년 11월 22일 49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다.

베르만의 생애에 관한 전기적 사실들 가운데 번역 실천 및 번역학 연구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들을 수집하기 위해 우리는 베르만이 1991년 4월 집필한 ‘학위논문 지도를 위한 교수자격 심사용 종합보고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글 「시초에 번역가가 있었다」를 적극 검토하였다. 이 글은 베르만의 ‘자기분

-
- 19) 1981년 프랑스와 미테랑(François Mitterand) 대통령의 사회당 정권이 들어선 후 ‘국립 전문용어/번역 연구원’ 프로젝트가 입안되어 1984년 베르만에게 추진 책임이 맡겨졌다. 그러나 1986년 우파의 총선 승리로 행정부가 교체되면서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여러 기관들의 협조 덕분에 간신히 비영리단체의 형태로 자크 아미요 센터가 살아남았고 베르만이 센터장을 맡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정부로부터 별다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채 어렵게 센터를 운영하였다(Isabelle Berman 2021: 21).
- 20) 브리세(Brisset 1992: 22)와 이자벨 베르만(Isabelle Berman 2021: 9)의 증언에 따르면, 베르만은 혼자서 자크 아미요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한데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번역 진흥정책을 펼치는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꿈꾸어 왔던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자 센터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석(auto-analyse)’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그는 자신이 번역에 입문하게 된 동기와 번역학 연구 및 교육에 진입한 계기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사실, 베르만은 전 생애에 걸쳐 번역 실천, 번역학 연구, 번역 및 번역학 교육, 번역 진흥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번역과 4종의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부터 베르만의 삶과 번역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3.2 베르만, 번역가 되다

먼저, 베르만이 번역 실천, 특히 문학번역 실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60년(그의 나이 18세)이었다. 이 시기 그에게 번역가가 되고자하는 ‘욕망(désir)’이 싹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여 영어 실력을 가다듬고 독일어를 학습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번역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데는 당시 그가 매료되었던 필립 자코테(Philippe Jaccottet 1925-2021)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베르만은 스위스의 불어권 시인이자 번역가인 자코테의 작품과 번역을 동시에 사랑하였고, 그에게 번역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자코테처럼 되는 것이었다. 호메로스(Hómēros), 공고라(Góngora), 릴케(Rilke), 횔덜린(Hölderlin), 무질(Musil) 등을 번역한 자코테의 번역 원칙은 “가능한 범위에서 부조리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텍스트의 문자(lettre)에 따라 번역하기”²¹⁾로 표상될 수 있는데, 베르만에 따르면 이것이 1960년대에 피에르 클로소프스키(Pierre Klossowski), 장 보프레(Jean Beaufret), 이브 본느푸아(Yves Bonnefoy), 피에르 레리스(Pierre Leyris), 미셸 드기(Michel Deguy), 앙리 메쇼닉(Henri Meschonnic) 등이 파리에서 내놓은 ‘작품’으로서의 번역들과 1959년 프랑스로 처음 번역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번역론 「번역가의 과제(Die Aufgabe des Übersetzers)」에 공통된 ‘욕망’이었다. 이처럼 베르만은 자코테의 번역 및 번역관에 심취하여, 그리고 1960년대 파리에서 일어난 번역을 통한 변혁 운동에 동참하고자, 고등학교 졸업 후 번역을 시작하였고,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번역 행위와 언어 간

21) Philippe Jaccottet, “Postface”, in Homère (1982) *Odyssée*, traduit par Philippe Jaccottet, Paris: FM/La Découverte, 409.

교섭 등에 대한 성찰을 가다듬어 갔다. 따라서 베르만에게 하나의 전범으로서 코나투스(conatus)의 대상은 바로 독일 낭만주의에 심취한 시인이자 번역가로서의 자코테였다고 볼 수 있으며, 베르만이 번역계에 입문하게 된 동기인 일루시오(illusio)는 자코테처럼 작가이자 동시에 번역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사실, 베르만이 번역계에 입문하게 된 것은 1967년 『라 델리랑트』 1, 2호에 독일 작가 노발리스(Novalis)의 단장(斷章, fragments)들과 오스트리아 시인 게오르크 트라클(Georg Trakl)의 시들을 불어로 번역하여 게재하고, 이자벨 가르마가 이끄는 아랑극단(Théâtre d'Aran)의 공연을 위해 1969년 아일랜드 작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의 희곡 『환영(幻影)의 바다*The Shadowy Waters*』를 번역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의미의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아르헨티나 체류에서 돌아온 후 1976년부터 파라과이 소설가 아우구스토 로아 바스토스(Augusto Roa Bastos)의 『최고인 나*Yo el Supremo*』를 번역하면서부터였다. 이후 그는 아르헨티나 소설가 로베르토 아를트(Roberto Arlt)의 『7인의 광인*Los siete locos*』, 페터 헤르틀링(Peter Härtling)의 아동문학서, 유진 웨버(Eugen Weber)의 미국 역사서 등을 1986년까지 계속해서 각기 스페인어, 독일어, 영어로부터 번역하게 된다. 생전에 베르만은 자신의 표현대로 ‘다역가(polytraducteur)’였다. 마디 파로키(Mahdi Farrokhi)의 베르만 서지목록(2009, 189-191)에 따르면 그는 총 27점의 번역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문학번역이고 그 중에서도 소설과 에세이 등 산문 번역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 점에서 번역가로서 베르만의 아비투스(habitus)는 문학적 산문 작품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텍스트를 번역하는 다역가로서, 문학적 글쓰기의 탐색을 목표로 번역에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성향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한편, 베르만이 번역가로서 이룩한 성취, 즉 상징자본(capital symbolique /symbolic capital)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캐나다의 번역학자 마르크 샤롱(Marc Charron)은 한 논문(2001)에서, 베르만이 수행한 로아 바스토스의 『최고인 나』 번역이 베르만이 번역학자로서 비판한 프랑스의 번역 관행, 즉 자민족중심의 시각에서 번역을 통해 낯선 작품에 가하는 왜곡 성향들(tendances déformantes)²²⁾을 거의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번역 실천과 번역학적 원칙들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3.3 베르만, 번역학자 되다

마사르디에-케니의 기록(Massardier-Kenney 2009: xvi)에 따르면, 베르만은 1971년 아르헨티나로 떠나기 전까지 소르본느대학교에서 독일 낭만주의 시학에 관한 학위논문을 준비 중이었다. 아마도 그 일환이었는지, 그는 1968년 친구 푸아드 엘-에트르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독일 낭만주의에 관한 단장(斷章)들을 정리하여 두 사람이 공동으로 창간한 시 전문지 『라 델리랑트』 3호(23)에 실었고, 같은 해 이 글은 본 잡지를 발행하는 동명의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그렇다면, 베르만이 소르본느 대학교에서 독일 낭만주의 시학 연구를 시작한 것은 어떤 계기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것 역시 자코테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자코테 자신도 독일 낭만주의에 심취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프랑스의 우수 출판사인 갈리마르가 간행하는 문학전집 *La Pléiade* (라 플레이아드)에 포함된 뢰팅의 주요 작품집 번역 출판을 주관하였다.

그런데 베르만은 결국 1981년 파리8대학교에서 앙리 메쇼네키의 지도 하에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번역이론’을 주제로 언어학 박사학위(24)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르만으로 하여금 독일 낭만주의의 시학 연구에서 번역이론 연구로 방향 전환을 하게 만든 것인가? 베르만은 『푸아드 엘-에트르에게 보내는 독일 낭만주의에 관한 편지』에서 독일 낭만주의 시학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시도하였으나, 번역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로아바스토스의 『최고인 나』 번역을 계기로 박사논문 준비를 재개하면서 아르헨티나로 이주하기 전에 추진했던 시학에서 번역학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1976년에 이루어진 『최고인 나』의 번역은 베르만에게 단순히 전업

- 22) 베르만은 1985년 발표된 두 논문(“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La traduction comme épreuve de l’étranger”)에서 프랑스 및 서구의 번역 실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12-13개의 왜곡 성향들을 지적하고 이를 비판하였는데, 이 성향들은 낯선 것을 낯선 것 그대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자민족중심주의 번역(traductions ethnocentriques)과 번역 과정에서 원작의 모습을 가리려는 덮어쓰기식 번역들(traductions hypertextuelles)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 23) Berman (1968) “Lettres à Fouad El-Etr sur le romantisme allemand”, *La Délirante* 3, 86-117.
- 24) 프랑스 대학도서관 문헌목록 시스템(Système Universitaire de Documentation, 약칭 SUDOC, <<http://www.sudoc.abes.fr/>> 참고.

번역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하게 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베르만의 자기분석(Isabelle Berman 2021: 14)에 따르면, 로아 바스토스의 작품 번역은 그에게 번역에 대한 본격적 성찰에 눈을 뜨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훗날 자신의 박사논문의 핵심 테제가 된 ‘낯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와 ‘번역을 통한 모어의 확장’을 문자(lettre)에 대한 작업을 통해, 다시 말해 원작의 텍스트적 짜임새(textualité)에 매달림으로써 실행에 옮기려는 그의 번역 지향이 『최고인 나』의 번역을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게다가 1977년 Belfond 출판사에서 『최고인 나』의 번역이 출간된 후 베르만은 1978년 프랑스 남부 툴루즈(Toulouse)에서 열린 로아 바스토스 관련 학술대회에 연사로 초청받아 자신의 ‘번역기획(projets-de-traduction)’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는 당시 청중들의 열렬한 반응 덕분에 ‘번역에 관해 말하고 사유하는 것’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베르만은 1981년 박사학위 취득 후 10여년간 30여편의 번역 관련 논문과 학술 에세이를 각종 문예지 및 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 데리다의 제안을 받아들여 1984년부터 1989년까지 파리 국제철학학교의 번역 연구 프로그램을 맡아 번역학 세미나를 주관하였다²⁵). 베르만이 이 시기에 행한 일곱차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번역, 모국어, 외국어 (1984년 봄),
- 번역에서 문자성(littéralité) 개념 (1984년 겨울)
- 철학과 번역: 발터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 주해 (1984년-1985년 겨울)
- 번역의 결함 (1986년 봄)
- 프랑스 번역의 역사 (1987년 봄)
- 번역-바벨: 전문번역과 문학번역 (1988년 봄)
- 존 던과 프리드리히 힐덜린 작품의 번역 주해 (1989년 봄)

베르만의 업적들 가운데 생전과 사후에 총 8권의 단행본들이 출간되었는데 이들의 주제를 간략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1984년 출간된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은 제목 그대로 번역을 통해

25) 브리세(Brisset 1992: 22)에 따르면 베르만은 자원봉사로 일했던 국제철학학교 활동을 시간 부족으로 인해 1989년 이후로 중단하게 된다.

낮선 언어와 문학이 주는 시련을 겪으며, 모어와 자국 문학의 확장을 피하였던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번역 이론에 대한 연구였으며, 1985년 논문모음집 *Les tours de Babel: essais sur la traduction*(바벨탑들: 번역에 관한 시론)에 실렸다가 1999년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번역과 문자: 먼 것의 거처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는 베르만 자신의 윤리적 번역론 및 번역 분석론을 처음 설파하고, 이를 기반으로 훔덜린, 샤토브리앙(Chateaubriand), 클로소프스키의 문자 지향적 번역 사례들을 분석한 것이었다. 한편, 그는 『바벨탑들: 번역에 관한 시론』에 독일의 신학자이자 해석학자인 프리드리히 슈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가 쓴 “서구 최초의 번역 이론서”인 *Ü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Übersetzens*(번역하기의 다양한 방법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실었는데, 이 글 역시 베르만 사후 1999년에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밖에 독일 낭만주의 시학에 관한 예비적 고찰에 해당되는 『푸아드 엘-에트르에게 독일 낭만주의에 관해 보내는 편지』(1968)와 정부의 번역정책 입안을 위한 프랑스 주요 연구소 내 번역 현황 조사 보고서인 *Traduction et recherche scientifique*(번역과 과학 연구)(1986)가 베르만 생전에 출판된 단행본들이었다. 다음으로, 자신의 번역비평 이론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존 던(John Donne) 시의 프랑스어 번역들에 대한 본격적 번역비평을 시도했던 『번역비평을 위하여: 존 던』(1994), 그의 번역 및 번역비평 이론의 토대가 된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에 대한 심층적 주해를 감행한 *L'âge de la traduction—« La tâche du traducteur » de Walter Benjamin, un commentaire*(번역의 시대: 발터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 주해)(2008), 니콜 오렘(Nicole Oresme)과 자크 아미요(Jacques Amyot)를 중심으로 프랑스 번역 전통에 대한 고고학적 탐사를 기도한 *Jacques Amyot, traducteur français. Essai sur les origines de la traduction en France*(프랑스 번역가 자크 아미요: 프랑스에서의 번역의 기원에 대한 시론)(2012)은 베르만 사후에 미망인의 주도로 발간된 단행본들이다.

베르만의 번역학적 행적을 행위 주체의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된 부르디외의 주요 개념들을 통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번역학계가 베르만을 유인한 동인으로서의 일루시오(*illusio*)는 바로 인간 본연의 경험으로서 번역에 대해 독자적으로 말하고 사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리라는 기대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번역학자로서 베르만의 아비투스(*habitus*)는, 본원적으로 (문학)번역

가로서, 낯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모어를 확장하는데서 진정한 번역의 지향을 찾으며, 번역 사유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번역 문화의 창달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경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게다가, 프랑스 번역학 장에서 번역학자 베르만의 헤시스(hexis)는 원문의 문자, 즉 그 텍스트적 짜임새에 초점을 맞춘 번역과 이를 지향하는 번역(이론)가들에 관한 연구 및 강의 그리고 번역가의 주관성에 기초한 번역비평의 탐구로 나타났다. 베르만이 번역학 장에 입문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그가 동시에 반면교사로 삼게 된 코나투스(conatus)의 대상은 지도교수였던 메쇼너르로 볼 수 있다. 끝으로, 프랑스 번역학계가 베르만을 주목하게 되고, 그가 프랑스 번역학장의 형성에 한 축으로 참여하는데 바탕이 된 상징자본(capital symbolique/symbolic capital)은 독일 낭만주의와 발터 벤야민의 문자(lettre/letter) 지향적 번역 이론을 소개하고 연구한 데서 비롯된다. 베르만의 박사논문 주제였고, 국제철학학교에서의 주된 강의 내용이기도 했던 독일 낭만주의의 번역 이론은, 프랑스의 전통적 번역 관행과 담론이 모방적이고 수사(학)적 영역에 위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19세기 독일에서 발전된 해석학과 문헌학의 관점에서 낯선 문학과 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자국 문학과 문화를 개량하고 혁신하려는 의도에 기반한 것이었다. 더구나, ‘문화형성(Bildung)’의 수단으로서 독일 낭만주의의 윤리적 번역 방식은 당시 프랑스의 번역 관행과 번역 담론을 양분하고 있던 영미식 ‘이전(translation/transfer)으로서의 번역’과 17세기 이래 프랑스의 고유한 전통으로 자리 잡은 ‘부정한 미녀(belles infidèles)’식 탐미적 번역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베르만은 본인의 연구, 교육 및 번역 활동을 통해 번역에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을 부여하는 번역학자로 번역학계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3.4 번역학자 베르만의 입장

베르만의 번역학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과 번역 사이의 또다른 세 가지 관계, 즉 번역 실천, 번역 및 번역학 교육, 번역정책 활동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표현대로, “그와 번역 사이의 일반적 관계에는 번역하기의 경험이 그 중심을 이루며, 그는 무엇보다 애초에 번역가라는 이유에서 번역학자인 것이다”(Isabelle Berman 2021: 10). 그런데 베르만에게 번역

에 대한 성찰은 번역 경험의 단순한 해명, 즉 번역과 관련된 경험적 문제들의 서술에 그치지 않고, 번역의 본질을 도출할 수 있는 고유한 사유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는 번역이라는 경험을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 본연의 경험’으로서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인생 궤적, 성향 그리고 기질’에 맞추어 번역 실무를 위한 처방이나 방법론으로 귀결되는 과학적, 객관적, 실증적 번역학이 아니라 성찰의 한계를 넘어설 위험을 무릅쓰고 에세이적이며 사변적인 번역학을 선택하였다(Isabelle Berman 2021: 16).

베르만의 번역학적 성찰이 이와 같은 틀 속에서 규정될 수 있다면, 이제 그가 10여년간 천착한 번역학의 주요 영역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언급한 대로, 강비에(Gambier 2007: 209)는 베르만이 번역학의 과제들과 담론들을 위한 지표들을 거의 처음으로 제시하였다고 그 공로를 인정한 바 있다. 사실, 베르만은 1989년 한 논문에서 번역학에 제기되는 문제들과 이에 대해 번역학자에게 주어진 과제 11가지를 세분화하여 설명한 바 있다(Berman 1989: 676-679).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번역하는 도중에 작동하여 번역의 순수한 지향을 가로막는 왜곡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는 각기 결함의 분석론(analytique de la défaillance)과 파괴의 분석론(analytique de la destruction)의 영역에 해당된다.
- 2) 번역에서 내용의 전달과 의미의 복원에 속하지 않는 것, 즉 문자에 대한 작업(travail sur la lettre)을 규명하는 것으로, 번역 윤리학(éthique de la traduction)과 번역 시학(poétique de la traduction)이 함께 이를 담당한다.
- 3) 번역행위들의 역사성과 시간성을 탐구하는 일로, 이것은 번역사(histoire de la traduction)의 기술에 해당된다.
- 4) 번역 공간의 다원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데, 단순한 유형론을 구축하려고 하기 보다 완전히 상호 이질적인 분석 축들에 따라서 번역 공간에 접근하여야만 한다.
- 5) 모든 번역 담론들에서 너무나 잊혀진 존재인 번역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데, 이는 번역가 분석론(analytique du traducteur)의 몫이다.
- 6) 문자에 대한 작업으로서든 의미의 자유로운 복원으로서든 왜 번역이

모든 시대에 은폐되었고, 주변화되었으며, 평가절하된 활동이었는지를 분석해야만 한다.

- 7) 번역의 모든 경계들을 탐사하는 일이다. 이는 수평적으로 텍스트를 전이시키고 변형시키는 모든 행위들 간의 접점을 짚어주는 것과 수직적으로 번역 개념의 온갖 은유적 사용들을 포괄하는 것에 해당한다.
- 8) 번역공학적 이성(raison traductique)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는 언어의 테크놀로지화라는 강압적인 움직임에 휘말린 번역공학의 타당한 한계를 규정하는 일이다.
- 9) 번역 담론으로서의 번역학이 작품에 대한 또 다른 본질적 관계 양식들인 주석 및 비평과 어떤 연관을 갖어야 하는지 규정해야만 한다.
- 10) 번역학이 자율적인 지식으로서 독자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규정해야만 하는데, ‘번역으로 이끄는 교육(éducation à la traduction)’, 즉 ‘번역 파이데이아(paideia traductive)’야말로 번역학의 제도화에 포함되어야 한다.
- 11) 번역에 대한 모든 성찰이 자기 속한 번역 전통과 맺는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다. 번역학은 스스로를 특정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 놓인 담론으로 파악해야 하며, 따라서 각 나라의 번역 전통에 입각한 담론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번역 담론을 연구해야만 한다.

한편, 1991년에 작성되었고, 2020년에 발표된 「‘번역하기는 그 근본에 있어서 무엇이 경험인가?’—번역학의 과제들」에서 베르만은 1989년에 제시한 번역학의 과제들에 대해 몇가지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첫째, 자신이 제시한 11가지 과제들은 스스로 ‘작품 번역(traduction des oeuvres)’이라 부르는 문학, 철학, 종교경전 번역 등에 한정된 것으로, 이 영역들은 해석학의 본령에 속하고, 교육 이념으로서 ‘번역 파이데이아’의 영향 하에 놓인다고 명시하였다.²⁶⁾ 둘째, 번역학의 11가지 과제 가운데 번역 결함의 분석론, 번역 윤리 및 번역 시학, 역사적 성찰, 그리고 번역 문화가 그 중심축을 형성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1), 2), 3), 11)번 과제들이 번역학의 주요 과제들에 속하는 셈이다. 셋째, 자신의 모든 번역학적 연구 작업은 끊임없이 역사적 성찰을 지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그가 번역가로서 번역하기의 시간성에 민감해지도록 노력하였

26) 반면, 실용번역은 기술의 영향 하에서 단순한 방법론이나 전략들이 관장하는 방대한 영역에 속하므로 위의 11가지 번역학의 과제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을 뿐만 아니라 번역학자로서 번역의 역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해왔음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 그는 앞서 언급한 번역학의 11가지 과제 외에 그 궁극적 과제로 성찰의 작업을 통한 ‘번역 문화’의 구축을 꼽는다. 이때 번역 문화는 베르만에 의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즉, 이것은 한편으론 특정 문화 내에서 언어, 문학, 지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번역 행위를 배양하는(cultiver) 것, 다시 말해 돌보고 키워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론 번역에 의해 그 정체성이 정립되고, 번역이 항상 중심이 되는 문화(culture)를 뜻한다. 특히, 후자의 의미에서 번역 문화는 윤리적이고 시적인 번역 정신을 도처에 전파하는데 성공한 문화인 것이다.

4. 프랑스 번역학 장의 탄생 및 형성

학문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한다(이영훈 2013: 189-190). 그러나 우리는, 부르디외의 이론적 틀 내에서, 학술적 쟁점(enjeu/issue)의 존재유무와 그에 대한 학술장 내 주체들의 입장 취하기(prise de position/positioning)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프랑스 번역학 장의 탄생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프랑스 번역학의 기원, 즉 학술적 전통이 형성된 시점은 1980년대로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베르만(1989: 672-673)이 말하는 ‘전통적 번역 담론들’이 프랑스에도 존재해 왔으나, 이것들은 대체로 역사 서문이나 번역 지침서 형태로 이론적이라기 보다는 경험적인 것들이었으며, 잡다하고, 왜소하고, 이원론적인 논의들에 해당되었다. 한편, 프랑스에서 번역에 관한 이론적 저작들이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발표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이나 학자들 간의 공방은 찾아볼 수 없었다. 1970년대 중반 이전의 주요 저작들로는 발레리 라르보의 『성 히에로니무스의 가호 아래』(1946), 조르주 무냉의 『부정한 미녀들 *Les belles infidèles*』(1955),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1963), 장-폴 비네(Jean-Paul Vinay)와 장 다르벨네(Jean Darbelnet)의 『프랑스어와 영어의 비교 문체론 *La stylistique comparée du français et de l'anglais*』(1958) 앙리 메쇼닉의 *Pour la poétique II: Épistémologie de l'écriture / Poétique de la traduction* (시학을 위하여 2: 글쓰기의 인식론/번역시학)(1973) 등이 있다. 1970년대 중후

반에 간행된 번역 이론서들로는 무냉의 *Linguistique et traduction*(언어학과 번역)(1976), 모리스 페르니에(Maurice Pagnier)의 *Les Fondements sociolinguistiques de la traduction*(번역의 사회언어학적 토대들)(1978), 장-르네 라드미랄(Jean-René Ladamiral)의 *Traduire: théorèmes pour la traduction*(번역하기: 번역을 위한 이론소들)(1979) 등이 있다. 위의 저술들 가운데 문학과 시학의 관점에서 번역을 성찰한 라르보와 메쇼닉의 에세이 그리고 실천적 입장에서 번역 일반의 이론소를 탐구한 라드미랄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 하에 번역을 ‘언어 간 소통 과정’으로 파악하여 두 언어의 구조를 비교하거나 원문과 번역문의 언어 양상을 대조 분석하는 연구들에 해당된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두 가지 점은, 메쇼닉의 1973년 저서에서 조루주 무냉과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의 언어학적 번역 연구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1972년 캐나다의 브라이언 해리스가 번역학을 가리키는 프랑스어 용어로 제안한 ‘*traductologie*(트라둡톨로지)’가 라드미랄의 1979년 저술에서 처음으로 ‘번역 이론 *théorie de la traduction*’의 동의어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 번역학을 둘러싼 학문적 권위를 얻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먼저, 1981년에 발간된 언어학 학술지 *Langue française* ‘번역’ 특별호에서는 메쇼닉과 라드미랄 간의 지상토론(“*Poétique de../Théorèmes pour.. la traduction*”)이 열렸다. 앞에서 언급된 메쇼닉의 1973년 저술 중 “번역 시학”과 라드미랄의 1979년 저술 『번역하기: 번역을 위한 이론소들』을 토대로 번역학의 명칭과 그 학문적 성격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어서 1984년에는 프랑스 번역학계에 두가지 새로운 이론적 전망의 탄생을 알리는 핵심 저작 두 권이 출간되었다. 먼저, 다니카 셀레스코비치(Danica Selescovitch)와 마리안 르드레르(Marianne Lederer)는 그동안 에지트에서 통역에 한정되어 연구되어 왔던 ‘해석이론’을 번역에 적용한 *Interpréter pour traduire*(번역하기 위한 해석하기)²⁷⁾를 Didier 출판사가 기획한 *Traductologie*(번역학) 총서 제 1권

27) 이 제목에서 ‘*Interpréter*’라는 어휘는 사실상 해석하기와 통역하기를 동시에 가리키는 것으로, 이 책의 제목에는 사실상 번역하기에 대한 통역하기의 본질적 우선성이라는 함의가 담겨져 있다. 에지트 학파의 번역이론을 가리키는 명칭인 ‘*Théorie Interprétative de la Traduction*(번역의 해석 이론)’에서도 ‘*Interprétative*’는 ‘해석의’

의 형식으로 내놓았다. 한편, 앙트완 베르만은 자신의 1981년 박사논문 ‘독일 낭만주의의 번역 이론’을 바탕으로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독일 낭만주의 문화와 번역』을 프랑스의 대표적 출판사 Gallimard에서 출판하였다. 에지트학파의 저술은 ‘의미의 해석과 재표현’이라는 도식을 통해 통역과 번역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일반 번역학의 탐구였다면, 베르만의 저작은 ‘부정한 미녀’로 상징되는 프랑스의 자민족중심 번역 전통을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번역의 윤리적 차원을 밝혀낸 문제작이었다. 이로써 1980년대 프랑스 번역학계를 주름 잡은 4대 주역들, 즉 앙리 메쇼닉, 장-르네 라드미랄, 에지트학파(다니카 셀레스코비치, 마리안 르드레르), 앙트완 베르만이 모두 등장한 셈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번역학의 학문적 명칭 및 위상 그리고 번역의 지향점을 중심으로 각종 논쟁 및 공방을 통해 프랑스 번역학 장의 탄생과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4.1 프랑스 번역학 장 내의 대립구조

이 네 주역들 간의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 프랑스 번역학 장 내의 다양한 대립구조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첫째, 이들은 구약성경 번역가(메쇼닉), 독일철학 번역가(라드미랄), 문학번역가(베르만), 국제회의통역사(에지트학파)라는 구별되는 활동 배경을 갖고 있었다. 둘째, 이들의 제도적 터전은 통번역대학원(라드미랄, 에지트학파), 학부 및 일반대학원(메쇼닉), 개방대학(베르만)으로 차별화되었으며, 다른 세 주역들과는 달리 베르만만 비전임교원이었다. 셋째, 메쇼닉과 베르만은 애초에 박사과정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사이였으나, 이후 사제지간에서 결별한 악연을 갖고 있으며, 동년배인 베르만과 라드미랄은 소르본느대학교에서 같이 철학을 공부하였고, 라드미랄이 베르만의 박사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라드미랄이 재직 중인 파리 가톨릭대학교 산하 통번역대학원(Institut supérieur d'interprétation et de traduction, 약칭 ISIT)에 베르만이 출강한 적도 있으나, 두 사람은 라드미랄의 표현(1991: 63)을 빌리자면 ‘개인적으로 친구이자 이론적으로 호적수’였다. 넷째, 메쇼닉은 자신과 이론적 대척점에 위

이란 뜻과 ‘통역의’라는 뜻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호성을 에지트학파의 르드레르(2005: 129)와 라드미랄(2006: 111)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치한 라드미랄의 회갑 기념 강연에서 그를 ‘오랜 공모자’(2004: 7)라 부른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라드미랄과 친분 관계²⁸⁾를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자신의 제자였던 베르만과 그의 저술에 대해서 베르만의 생존 시기에는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했고, 사후에는 침묵이나 촌철살인의 비판으로 응대할 바 있다²⁹⁾. 다섯째, 라드미랄은 ‘번역의 해석이론(théorie interprétative de la traduction, 약칭 TIT)’의 창시자인 셀레스코비치와 자신이 ‘지적인 사촌 관계’(2005: 146)에 속함에도, (베르만과 더불어) 자신이 프랑스 최고 학부인 ‘그랑드제콜Grandes Ecoles’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셀레스코비치에게 무시당했음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2005: 141-142). 한편, 셀레스코비치는 1980년대 프랑스 번역학을 결산하는 논문(1992: 483)에서 라드미랄과 베르만 모두 독일어에 매혹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히 난해한 글쓰기로 인해 이들의 견해에 흥미를 갖기 어렵다고 혹평하였다.

28) 메쇼닉에 따르면(2004: 7), 이 공모 관계는 라드미랄이 주관한 *Langages* 1972년 특별호에 메쇼닉의 논문 “Propositions pour une poétique de la traduction”을 포함시킨 데서 시작되었다. 더구나 메쇼닉과 라드미랄 두 사람은 *Langue française* 1981년 특별호를 공동으로 주관하였고, 각기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유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를 중심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29) 베르만과 메쇼닉 사이에 불화가 있게 된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기록이나 증언도 찾아볼 수 없다. 베르만이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5년 그가 주관한 논문모음집 『바벨탑들: 번역에 관한 시론』에 메쇼닉의 논문과 번역이 실렸으나, 정작 1984년 출간된 베르만의 박사논문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에는 이 책이 본인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언급은 물론 지도교수인 메쇼닉에 대한 의례적 인사조차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1999년 발간된 베르만 추모 논문집 *La traduction-poésie: à Antoine Berman*(번역-시: 앙투안 베르만에게)에 메쇼닉의 논문이 실렸으나 그 어디에도 베르만의 이름은 없다. 사실, 메쇼닉의 번역 관련 저술에서 베르만에 대한 언급을 찾기가 힘들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단호한 비판에 해당된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매우 깊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 때문인지 메쇼닉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베르만 효과’로 인해 스승인 메쇼닉의 업적이 프랑스 번역학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참고 2019: 455-467).

4.2 프랑스 번역학 장 내의 대치전선

1980년대에 프랑스 번역학 장을 구조화한 네 주역들 사이에는 다음의 네가지 대치전선이 다양한 조합을 통해 형성되었다. 첫째, 번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 분야를 가리키는 명칭에 대해 라드미랄(1979, 1981), 에지트학파(1984)와 베르만(1984)은 비록 각기 상이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불어권 캐나다에서 개발된 ‘*traductologie*(번역학)’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³⁰⁾. 반면, 메쇼닉은 이 용어가 독일어 ‘*Übersetzungswissenschaft*(번역과학)’과 그에 따른 정밀 과학의 꿈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번역 이론에 걸맞는 학문적 위상을 생각할 때, ‘*poétique de la traduction*(번역시학)’이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1981: 8)³¹⁾.

둘째, 에지트학파는 번역학 또는 *traductologie*의 정의에 통역을 포함시킨 반면, 베르만과 라드미랄, 그리고 메쇼닉은 각기 *traductologie*와 *poétique de la traduction*의 영역에서 통역을 묵시적으로 배제하였다. 또한, 에지트학파는 *traductologie*의 연구를 위해선 통번역 실무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담당할 주제로 통번역 실무자와 교육자를 지목하였으나, 베르만, 라드미랄, 메쇼닉은 비번역가나 다른 분야의 연구자 또한 번역학 연구에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셋째, 번역학의 학문적 성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차원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었다. 먼저, 1970년대부터 번역 연구를 전유해 온 언어학과의 관계에 대해 베르만, 메쇼닉, 에지트학파는 언어학이 번역을 단순한 언어 간 치환이나 접촉으로 파악함으로써 번역 현상의 다양한 국면을 왜곡하고 있으며, 무늬를 비롯한 언어학 기반 번역 연구들이 일제히 번역학을 응용언어학으로 삼아 지배하려 든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오로지 라드미랄만이 무늬와 자신은 ‘번역의 의미론

30) 사실, 번역학에 대한 학술적 명칭으로 *traductologie*를 사용하는데 대해선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 내에서도 이후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 2006년 프랑스에서 발간된 학술대회 논문집 *Qu'est-ce que la traductologie?*(번역학이란 무엇인가?)에 수록된 상당수 논문들에는 *traductologie* 대신 *traduction*, 즉 ‘번역’을 해당 학문의 명칭으로 사용하자는 주장들이 담겨 있다.

31) 메쇼닉은 1990년대 말부터 ‘*poétique du traduire*(번역하기의 시학)’이란 명칭을 선호하였다.

자'로서 같은 지적 계보에 속하며(1981: 15), 번역학이 언어학으로부터 방법론과 용어들의 상당 부분을 빌려올³²⁾ 수 밖에 없기에, 번역학과 언어학 사이에 인식론적 친족성을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제도권 내 번역학의 학문적 위상과 관련해서, 메쇼닉을 제외한 베르만, 라드미랄, 에지트학파는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번역학에 자율성과 학제성을 동시에 인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베르만은 모든 인접 학문들에 열려있으면서도 오로지 번역만을 연구하는 자율적 틈새 학문으로 번역학을 규정하였다. 라드미랄은 번역학이 번역실무론이 되어야 하지만 언어학, 철학, 심리학과 협업이 가능한 학제적 연구 분야로 보았다. 에지트학파는 번역학을 심리학과 뇌공학 등의 도움을 받아 전문통번역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는 독자적 학문으로 간주하였다. 오로지 메쇼닉만이 번역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번역 연구를 국지적 학문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기에 언어, 문학, 사회에 대한 통합적 비판 이론인 시학의 하위 범주로서 번역학을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넷째, 무엇을 번역할 것인가, 즉 번역의 지향에 대해서 네 주역들은 새로운 이론적 조합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번역의 지향을 둘러싼 대립각을 보다 선명하게 만든 것은 라드미랄이었다. 그는 1986년 발표된 논문 “Sourciers et ciblistes(원천주의자들과 표적주의자들)”에서 서구의 번역 이론들을 원천주의와 표적주의로 이분화한 후, 벤야민, 메쇼닉, 베르만을 모두 원문의 언어에 집착하는 원천주의자(sourcier)로 몰아붙이고³³⁾, 자신과 무녕, 나이다, 에지트학파를 원문의 의미에서 출발해서 도착언어로 적절한 재표현을 시도하는 표적주의자(cibliste)로 자리매김하였다. 전통적인 번역 상의 양자택일 방식들(직역 대 의역, 문자 대 정신, 형식 대 의미 등)을 계승한 이 이분법은 그 단순명료함 덕택에 프랑스 번역학 장 내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고, 라드미랄과 에지트학파는 이 점을 악용(?)하여, 메쇼닉과 베르만을 ‘직역주의자(littéraliste)’로 몰았다. 이에 대해 베르만은 에지트학파에 대해 번역에 대한 번역가 자신의 근본적 성찰을 축

32) 에지트학파도 기본적으로 번역을 언어 간 치환으로 간주하는 언어학적 접근에 반발하며, 번역의 소통적 측면과 번역 실무자의 인지적 과정에 주목하면서도, 주된 용어들을 언어학으로부터 차용하고 있다.

33) 심지어 라드미랄은 베르만 등 이른바 원천주의자들의 번역 지향이 갖는 논리를 도착 언어를 ‘강간’하는 논리로 매도(1986: 39)하였다.

구하기 보다는 간편한 레시피를 제공하려는 방법론자들이라고 폄하(1985: 38-39)하였다. 또한 사후 발간된 『번역비평을 위하여』를 통해, 라드미랄이 제기한 원천주의자 대(對) 표적주의자 간의 대립은 표면적인 것이며,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고(1994: 16, 94), 게다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역주의자’로 몰린 메쇼닉에 대해서도 그의 번역비평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비판일색이라며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1994: 45-50).

1980년대 프랑스 번역학 장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대치전선들은, 그 주역들 중 한 명인 베르만이 1991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이론을 한 대립 축으로 삼아 번역의 지향을 둘러싼 논쟁으로 축소된 채 이어졌다. 라드미랄과 에지트학파는 메쇼닉과 베르만 등 원천주의자들이 단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직역을 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번역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낯섬을 만들어 냄으로써(Lederer 1994: 65), 번역하는 언어, 즉 도착언어를 망가뜨리려한다고 비난하였다. 심지어 라드미랄(2000)은, 신약성경 고린토 후서 3장 6절의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는 구절을 바탕으로, 그리고 원천주의자로 분류된 벤야민, 메쇼닉, 베르만이 모두 유대 혈통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원천주의와 표적주의 간의 이론적 대립을 유대교 대 카톨릭이라는 신학적 차원까지 무리하게 확대시킨 바 있다. 한편, 번역에서 원작의 리듬을 옮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역시 원천주의자로 몰린 메쇼닉도 베르만이 번역의 지향점으로 삼은 문자, 즉 원문의 텍스트적 짜임새가 결코 직역과는 무관함³⁴⁾에도 불구하고, 베르만의 번역 지향을 작품의 번역이 아니라 원문의 언어에 집착하는 ‘기호 상의 이분법’³⁵⁾이자 ‘지역론적 환상’(2004: 8)이라고 신랄히 비판하였다. 사실, 메쇼닉은 베르만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저술이나 자신에 대한 그의 비판에 대해 침묵을 고수하였고, 베르만 사후에도 자신의 저서들에서 몇 차례 촌철살인의 비판만을 시도했을 뿐 무시 전략을 폈다. 그럼에도, 2004년 논문에서 메쇼닉이 자신과 라드미랄 사이에 인정한 오랜 공모 관계라는 표현에는,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반(反)베르만 공동 전

34) 베르만의 ‘문자’ 개념과 관련해서 줄고(2018)를 참고하기 바란다.

35) 메쇼닉이 비판하는 기호 상의 이분법은 소쉬르 이후 언어를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이원화된, 따라서 형식과 의미로 분리될 수 있는 기호로 간주하는 인식론적 경향을 가리킨다.

선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같은 전략적 공모 관계의 모호성은 라드미랄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는 자신과 에지트학과 간의 ‘지적 사촌 관계’를 언급하면서, “나는 에지트와 동의하는데, 에지트가 나와 동의하지 않는다”(2005a: 141)는 말장난으로 그들 간의 평탄치 못했던 관계를 암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결코 에지트의 이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험담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이 이론의 핵심인 ‘탈언어화(déverbalisation)’ 개념에 대해서 이를 번역 과정의 독립된 단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2005b: 476), 에지트 학자들이 해석이론을 전문번역이 아닌 문학번역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려는 것이 과연 해석이론의 창시자인 셀레스코비치의 유지(遺旨)에 충실한 태도냐고 비꼬기까지 하였다(2005a: 152).

정리해보자면, 1980년대 프랑스 번역학장 내의 주요 행위주체들(agents) 간의 대치전선은 프랑스 번역학 장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쟁점들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입장 취하기와 입장들 간의 조합이 장의 역동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시기 번역학 장 내의 학술 논쟁과 대치전선이 순수한 학문적 열정과 진리 탐구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번역학 장 내의 학문적 정통성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1980년대 번역학 장 내 대립관계의 4대 축을 형성한 메쇼닉, 라드미랄, 에지트학과, 베르만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화 또는 합종연횡을 통해 장 내의 서열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경쟁하였고, 베르만 사후에는 라드미랄이 중심이 되어 남은 세 축들 간의 긴장 관계가 모호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2001년 셀레스코비치가, 2009년에는 메쇼닉이 사망함으로써, 에지트에 르드레르가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프랑스 번역학 장 내 힘의 균형이 라드미랄에게 쏠리는 느낌이다. 최근 들어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각종 번역학 학술대회에서 라드미랄이 거의 빠짐없이 기조강연자로 나서는 모습이 이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는 1980년대 프랑스 번역학 장의 형성에 이바지한 네 축들 가운데 남은 ‘마지막 공룡’인 셈이다. 물론, 베르만은 사후에도 번역의 지향을 둘러싼 논쟁에서 빠지지 않았고, 서두에서 본 바대로, 프랑스 번역학 장의 형성에 다른 누구보다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3 베르만 효과의 요인

이처럼, 베르만이 프랑스 번역학 장의 형성과정에서 각기 번역학 연구자, 번역학 교수자, 번역정책 전문가로서 활약하면서 확보한 상징자본은 그의 사후에 큰 영광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생전에 그는 프랑스 학문장 내에서 제도적으로 볼 때 늘 주변부에 속한 소수자였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귀국한 후 교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한동안 대학 강의를 맡지 못하였고, 1976년부터 전문 문학번역가로 활동하면서도 생활을 위해 유네스코와 민간 기업의 수많은 실용 번역 요청들을 거절하지 못하였다(Brisset 1992: 22). 더구나, 1981년 메쇼닉의 지도 하에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지도교수와의 불화로 인해 프랑스 대학에서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개방대학인 파리 국제철학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서 번역학 강좌를 주관하거나(Brisset 1992: 22), ISIT 통번역대학원과 출판교정교열 평생교육원인 Coforma(코포르마)에서 수년간 본인 전공과 무관한 실용번역 강의를 하였다(Isabelle Berman 2021: 16). 끝으로, 라드미랄의 보고(Ladmiral 2005: 141-142)에 따르면, 베르만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ESIT의 실권자였던 셀레스코비치로부터 부당하게 배척당했다고 한다. 베르만이 이처럼 제도권 대학에서 소외된 사실에 대해 브리세(Brisset 1992: 22)나 누스(Nous 2021: 28) 같은 번역학자들은 프랑스 대학 시스템의 부조리함을 공공연하게 개탄해 하지않았다³⁶⁾. 어쨌든 베르만은 1991년 그동안 홀로 꾸려왔던 자크 아미요 센터 일을 중단하고 대학 교수자격 심사³⁷⁾에 지원하려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이마저도 포기하고 병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작 『번역비평을 위하여: 존 던』의 원고를 정리하며 생을 마감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베르만 효과(effet Berman)’라는 표현을 통해, 프랑스 번역학의 역사에서 메쇼닉이 제자였던 베르만에 가려져 학문적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메쇼닉의 제자 및 추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³⁸⁾. 이러한 반응은 박사논문 발표 이후 자신과 결별한 베르만에 대해 침묵과

36) 한편 라드미랄(Ladmiral 1991: 64)은 베르만이 ‘다소 굴곡진 인생(biographie un peu aventureuse)’으로 인해 대학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37) 베르만이 교수자격 심사를 신청한 대학의 이름에 대해서는 어느 전기 자료에도 명확한 언급 없이 ‘대학(l’Université)’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38) Serge Martin, “Avec Henri Meschonnic, traduire-vivre en passages de voix”, *Apulée*,

몇차례 촌철살인의 비판으로만 반응한 메쇼닉의 태도와는 대비가 된다. 그렇다면 과연 프랑스 번역학 장의 형성 과정에서 베르만이 공헌한 바에 대해 오늘날 번역학계가 높이 평가하는 근거들은 무엇일까?

먼저, 베르만은 위에서 언급된 번역학 장 내의 각종 대치전선에 항상 참여하였고 프랑스 번역학 장 내의 다른 주체들 모두와 대립각을 형성하였다. 심지어 같은 원천주의자로 몰린 메쇼닉과도 번역학의 학문적 지위와 번역의 지향면에서 상호 비판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베르만은 여타 대립 주체들로부터 ‘직역주의자’ ‘원천주의자’, ‘기호론자’로 매도되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그는 살아 생전 에지트 등 프랑스의 제도권 대학으로부터 배격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정부가 발주한 자크 아미요 연구소 프로젝트의 경우도 변변한 지원을 받지 못해 번역 문화 창달을 위한 정책 행보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런 불행 속에서 4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함으로써 프랑스 번역학계에서 순교자적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적, 인적 뒷받침 없이 프랑스 번역학 장 내에서 베르만이 처한 주변적이고 소수자적 위상은 그가 ‘부정한 미녀’식 프랑스 번역 전통과 낯선 언어 및 문화를 동화시키려는 폐쇄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프랑스 사회 관습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번역학에 윤리적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번역학자로서 그의 상징자본을 공고히 하게 만들었다. 끝으로, 그는 신생 학문인 번역학의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틈새 학문으로서 번역학의 학제간 경계를 획정하려고 노력한 점에서 후대 번역학자들에게 인식론적 지표가 되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본 논문은 피에르 부르디외의 문화 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번역학자의 사회적 정체성과 그가 활동한 번역학 장 내의 갈등 구조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1980년대의 형성과정에서 프랑스 번역학

장 내 주요 주체들의 사회적 궤적 및 이해관계, 그리고 이들의 아비투스과 헵시스 등 개별 특성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하고, 장 내의 대립구조와 주체들 간의 대립전선만을 평면적이고 도식화된 방식으로 제시한 점이 무엇보다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물론, 지면상의 제한과 베르만 개인을 관찰 지점으로 선택한 점을 핑계로 내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르디외식 번역사회학 연구를 처음 시도한 연구자의 경험 부족 탓이 크다고 본다. 이에 관련 후속 연구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된 면모를 선보일 것을 기약하면서, 본 연구에 ‘성찰적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제안에 따라 소박하게나마 본 연구자의 자아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인은 미군 통역관 출신의 아버지와 일본어 세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부모의 외국어 구사 능력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외국어 학습에 관심을 갖거나, 자신의 외국어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고교시절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여 그 인연으로 대학(1981-1984)에서 프랑스어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일반대학원에 진학 후, 석사과정(1985-1986)에서 은사로부터 외국어문학 연구의 궁극적 목표가 번역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대학원 수업에서 라드미랄의 저작(*Traduire: théorèmes pour la traduction*)을 별다른 흥미 없이 읽었다. 프랑스 유학 기간(1988-1996) 메쇼닉과 베르만의 저작들을 피상적으로나마 접하게 되었고, 소르본느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중세 및 르네상스 시기 라틴어에서 유입된 프랑스어 부정사절 및 분사절 연구를 통해 번역 상의 문헌학적 충실성에 민감하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귀국 후 “문법의 번역, 번역의 문법”을 주제로 첫 번째 학술발표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번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하지는 못하였다.

IMF 시기에 교수로 임용되어 불어불문학과 학부 및 일반대학원의 교수 및 연구자로 경력을 쌓아가면서, 국내 학계에서 중세 및 르네상스 시기 프랑스어 문학 연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에 좌절하여 서양 고전 레토릭 연구로 1차 방향 전환(2002-2006)을 시도하였으나, 레토릭에 대한 학문후속세대의 관심 부족으로 다시 번역학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 프로젝트(2008-2011) 수행을 계기로 번역학 연구에 몰입하게 되었다. 연구년의 일환으로 캐나다 체류(2010)를 통해 한국어 번역개념사 및 번역사회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번역학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탐구를 병행하며,

한국 번역학의 제도적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 노력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베르만의 윤리적 관점과 번역가의 주체성 옹호에 공감하여, 그의 번역 사상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끝으로, 본 연구자의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인은 현재 학부 및 일반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정교수로서 대학원 고전번역협동과정에 겸임교수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도 객원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서양 레토릭 관련 단독 또는 공동 번역서를 출간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번역 실무 경험이 일천하며, 스스로 번역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탐구에 경도되어 있다고 본다. 연구책임자로서 대규모 번역평가 프로젝트와 BK21(PLUS)와 같은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을 수행하였고, 10여년간 번역과레토릭연구소장을 맡아 번역학 겨울학교, 번역학 대학원생 심포지엄, 번역학 워크숍, 번역 대담, 번역학 이슈파이팅, 번역학 독회 등을 운영해 왔다. 번역학 국제전문학술지 *Target*의 편집위원을 역임하였고, 한국번역학회 수여 정기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준수한 학술 지표(현재 논문 45편, 평균피인용회수 4.8, H지수 8)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은 한편으론 영어 및 영미권 번역학 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다른 한편으론 통역번역 전문대학원과 통번역 실무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국 번역학 장의 일원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일반대학원 어문학과 소속의 비영어 전공자로서, 앞서 언급된 각종 실적 및 지표를 바탕으로 장 내 서열 상의 비교 우위를 차지할 만한 사회자본 및 상징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문적 권위도 무시하기 힘든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영훈 (2013) 「한국번역학사 기술을 위한 전제와 시론」, 『번역학연구』 14(2): 187-222.
- 이영훈 (2015) 「앙트완 베르만의 번역학 지형도」, 『한국프랑스학논집』 91: 495-521.
- 이영훈 (2018) 「앙트완 베르만의 번역이론에서 ‘lettre’의 개념」, 『코기토』 84:

149-189.

이영훈 (2019) 「베르만 대(對) 메쇼닉: 번역학, 번역비평, 벤야민을 중심으로 한 비교 고찰」, 『불어불문학연구』 120: 453-486.

이영훈 (2021) 「번역사회학 개관: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기반으로」, 『번역 · 언어 · 기술』 2: 45-69.

Ballard, Michel (éd.)(2006) *Qu'est-ce que la traductologie?*, Arras: Artois Presses Université.

Berman, Antoine (1968) *Lettres à Fouad El-Etr sur le romantisme allemand*, Paris: La Délirante.

Berman, Antoine (1984) *L'épreuve de l'étranger: Culture et traduction dans l'Allemagne romantique*, Paris: Gallimard.

Berman, Antoine (1985)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in Antoine Berman et al. (éds.) *Les tours de Babel: essais sur la traduction*, Mauvezin: Trans-Europ-Repress, 33-150.

Berman, Antoine (1989) 'La traduction et ses discours', *Meta* 34(4), 672-679.

Berman, Antoine (1992) 'Critique des traductions: John Donne', publiée par Michel Deguy, *Po&sie* 59: 3-20.

Berman, Antoine (1994) *Pour une critique des traductions: John Donne*, Paris: Gallimard.

Berman, Antoine (1999)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Paris: Seuil.

Berman, Antoine (2020) '« De quoi le traduire est-il, en son fond, expérience? » Les tâches de la traductologie', *Po&sie* 174: 21-32.

Berman, Isabelle (2021) 'Pour Antoine Berman, 30 ans après', *Tradução em Revista* 30: 1-24.

Bitsoris, Évanghélou (1996) 'Le projet de traductologie d'Antoine Berman', *Trans* 1: 47-58.

Boisseau, Maryvonne (2009) 'Les discours de la traductologie en France (1970-2010) : analyse et critique', *Revue française de linguistique appliquée* 14(1): 11-24.

- Boisseau, Maryvonne (2016) 'De la traductologie aux sciences de la traduction ?', *Revue française de linguistique appliquée* 21: 9-21.
- Boulanger, Pier-Pascale (2012) 'Henri Meschonnic aux États-Unis ? Un cas de non-traduction', *TTR* 25(2): 235-256.
- Bourdieu, Pierre (1975) 'La spécificité du champ scientifique et les conditions sociales du progrès de la raison', *Sociologie et sociétés* 7(1): 91-118.
- Bourdieu, Pierre (1976) 'Le champ scientifiqu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2(2-3): 88-104.
- Brisset, Annie (1992) 'Antoine Berman, entre la terre nourrice et le bord étranger', *Circuit* 36: 21-22.
- Buzelin, Hélène (2013) 'Sociology and translation studies', in Carmen Millán & Francesca Bartrina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86-200.
- Charron, Marc (2001) 'Berman, étranger à lui-même?', *TTR* 14(2): 97-121.
- Chesterman, Andrew (2009)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es* 42: 13-22.
- Farrokhi, Mahdi (2009) 'Les oeuvres complètes d'Antoine Berman. Étude bibliographique', *Équivalences* 36(1-2): 183-197.
- Gambier, Yves (2007) 'Y a-t-il place pour une socio-traductologie?', in Michaela Wolf &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5-217.
- Gingras, Yves (2020) "Champ scientifique", in Gisèle Sapiro (dir.) *Dictionnaire international Bourdieu*, Paris: CNRS Editions, 150-152.
- Godard, Barbara (2001) 'L'Éthique du traduire: Antoine Berman et le « virage éthique » en traduction', *TTR* 14(2): 49-82.
- Gouanvic, Jean-Marc (1999) *Sociologie de la traduction : la science-fiction américaine dans l'espace culturel français des années 1950*, Arras: Artois Presses Université.
- Gouanvic, Jean-Marc (2006) 'L'enjeu d'une théorie sociologique de la traduction', in Michel Ballard (éd.) *Qu'est-ce que la traductologie?*

- Arras: Artois Presses Université, 161-170.
- Gouanvic, Jean-Marc (2007) 'Objectivation, réflexivité et traduction. Pour une re-lecture bourdieusienne de la traduction', in Michaela Wolf &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79-92.
- Gouanvic, Jean-Marc (2007) *Pratique sociale de la traduction: le roman réaliste américain dans le champ littéraire français (1920 - 1960)*, Arras: Artois Presses Université.
- Gouanvic, Jean-Marc (2014) 'Is Habitus as Conceived by Pierre Bourdieu Soluble in Translation Studies?', in Gisella M. Vorderobermeier (ed.)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New York: Rodopi, 29-42.
- Gouanvic, Jean-Marc (2017) 'Traductologie et double réflexivité: genèse de TTR et sociologie de la traduction de la littérature anglo-américaine en français', *TTR* 30(1-2): 13-38.
- Guillemin-Flescher, Jacqueline (2003) 'Théoriser la traduction', *Revue française de linguistique appliquée* 8(2): 7-18.
- Holmes, James S. (1988)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1972)', in James S. Holmes, *Translated!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66-80.
- Israël, Fortunato (2005) 'Une théorie en mouvement: bilan (provisoire) des acquis de la Théorie Interprétative de la Traduction', in Fortunato Israël et Marianne Lederer (éds.) *La Théorie Interprétative de la Traduction, I. Genèse et développement*, Paris/Caen: Minard, 67-88.
- Ladmiral, Jean-René (1986) 'Sourciers et ciblistes', *Revue d'esthétique*, nouvelle série, 12: 33-42.
- Ladmiral, Jean-René (1991) 'Antoine Berman, in memoriam', *TransLittérature* 2: 63-64.
- Ladmiral, Jean-René (1994) *Traduire: théorèmes pour la traduction*, 2nd édition, Paris: Gallimard.

- Ladmiral, Jean-René (1995) 'À partir de Georges Mounin: esquisse archéologique', *TTR* 8(1): 35-64.
- Ladmiral, Jean-René (2000) 'Théologie juive et théologie catholique de la traduction', in Danièle Frison (dir.), *Parcours judaïques VI, Actes du colloque "Les Juifs et le Livre"*, Nanterre: Université Paris X, 267-282.
- Ladmiral, Jean-René (2005a) 'Cousinages intellectuels', in Fortunato Israël et Marianne Lederer (éds.) *La Théorie Interprétative de la Traduction, I. Genèse et développement*, Paris/Caen: Minard, 141-162.
- Ladmiral, Jean-René (2005b) 'Le salto mortale de la déverbalisation', *Meta* 50(2): 473-487.
- Ladmiral, Jean-René (2006) 'L'empire des sens', in Marianne Lederer (éd.), *Le sens en traduction*, Caen: Minard, 109-125.
- Ladmiral, Jean-René (2009) 'Henri Meschonnic, In memoriam', *Revue Septet* 2: 29-32.
- Larbaud, Valery (1946) *Sous l'invocation de saint Jérôme*, Paris: Gallimard.
- Lavault-Olléon, Élisabeth (2018) 'Regard diachronique et prospectif sur un demi-siècle de traductologie pragmatique', *ASp* 74: 5-26, journals.openedition.org/asp/5239, 2021년 8월 5일 검색.
- Lederer, Marianne (2005) 'Défense et illustration de la Théorie Interprétative de la Traduction', in Fortunato Israël et Marianne Lederer (éds.) *La Théorie Interprétative de la Traduction, I. Genèse et développement*, Paris/Caen: Minard, 89-139.
- Lederer, Marianne (1994) *La traduction aujourd'hui : le modèle interprétatif*, nouvelle édition, Caen: Minard.
- Lemaire, Claire (2017) 'Traductologie et traduction outillée: du traducteur spécialisé professionnel à l'expert métier en entreprise', PhD dissertation, Grenoble: Université Grenoble Alpes.
- Massardier-Kenney, Françoise (2009) 'Translator's Introduction', in Antoine Berman, *Toward a Translation Criticism: John Donne*, translated by Françoise Massardier-Kenny, Kent, Ohio: Kent State University Press,

vii-xvii.

- Meschonnic, Henri & Ladmiraal, Jean-René (1981) 'Poétique de.../Théorèmes pour... la traduction', *Langue française* 51: 3-18.
- Meschonnic, Henri (2004) 'Sourcier, cibliste, c'est pareil, si c'est en plein dans le mille', *Transversalités* 92: 7-20.
- Mounin, Georges (1955) *Les belles infidèles*, Paris: Cahiers du Sud.
- Mounin, Georges (1963) *Les problèmes théoriques de la traduction*, Paris: Gallimard.
- Mounin, Georges (1976) 'La traduction en 1975 (un bilan français)', in Georges Mounin, *Linguistique et Traduction*, Bruxelles: Dessart et Mardaga, 189-214.
- Mounin, Georges (1980) 'La traduction par l'homme (La situation française en 1977)', in Bernard Pottier (éd.) *Les sciences du langage en France au XX^{ème} siècle*, Paris: Peeters, 465-478.
- Mounin, Georges (1983) 'La traductologie de Jean-René Ladmiraal', in A. Ningelgrün et A. Nysenholc (dir.) *Ecritures à Maurice-Jean Lefebvre*, Bruxelles: Editions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151-156.
- Nouss, Alexis (2001) 'Antoine Berman aujourd'hui: Présentation', *TTR* 14(2): 9-11.
- Oseki-Dépré, Inês (2003) 'Théories et pratiques de la traduction littéraire en France', *Le français aujourd'hui* 142: 5-17.
- Pickford, Susan (2013) 'Lecture: Jacques Amyot, traducteur français par Antoine Berman', *TransLittérature* 45: 104-105.
- Sapiro, Gisèle (dir.)(2020) *Dictionnaire international Bourdieu*, Paris: CNRS Editions.
- Sapiro, Gisèle (2020) 'Habitus', in Gisèle Sapiro (dir.) *Dictionnaire international Bourdieu*, Paris: CNRS Editions, 386-389.
- Schleiermacher, Friedrich Daniel Ernst (1999), *Des différentes méthodes du traduire/Ue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Uebersetzens*, traduit par Antoine Berman, Paris: Seuil.

- Seleskovitch, Danica (1984) 'La traductologie entre l'exégèse et la linguistique', in Danica Seleskovitch et Marianne Lederer, *Interpréter pour traduire*, Paris: La Sorbonne/Didier érudition, 264-272.
- Seleskovitch, Danica (1992) 'La trauctologie', in Bernard Pottier (éd.) *Les sciences du langage en France au XX^{ème} siècle*, 2^{ème} édition revue et augmentée, Paris: Peeters, 479-489.
- Talbot, Aurélien (2017) 'Antoine Berman et la théorie interprétative de la traduction: regards croisés', in Éric Dayre et Marie Panter (dir.) *Traduction et événement: poétique et politique de la traduction*, Paris: Hermann, 333-341.
- Tyulenev, Sergey (2014) *Translation and Society: An introduc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olf, Michaela (2007) 'Introduction: The emergence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in Michaela Wolf &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36.
- Wolf, Michaela & Alexandra Fukari (eds.)(2007)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Abstract]

**Antoine Berman and the Birth of the Translation Studies Field in
France: Socio-translatological Analysis**

Yi, Yeong-Houn
(Korea University)

In commemoration of 30th year since the death of Antoine Berman, a French translator and translation scholar, this research analyzed his social identity and the roles that he played in forming translation studies as a field in France. To this end, the framework of reflexive sociology, proposed by a French sociologist Pierre Bourdieu, was employed to explain how the field of translation studies operates and its agents interact within the field.

Taking a French writer and translator, Philippe Jaccottet, as his role model, Berman began his career as a literary translator to participate in the movement during the 1960s in Paris, which attempted to transform literature with translation. His translation of Augusto Roa Bastos's *Yo el Supremo* into French enabled him to reflect on translation theories, which explained "embracing foreignness as it is" and "enriching the mother tongue through translation" and turned him into a renowned translation scholar.

He remained at the periphery of the French translation studies field in the 1980s whether it be either the social or the academic system. However, he always took the center of academic discussions, as he had conflicts with mainstream translation scholar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Jean-René Ladmiral, Henri Meschonnic and ESIT School, over what status the translation studies occupied in the academic institutions and what purpose translation should pursue. With his works on translation and lectures, he condemned the deformation tendencies observed in all types of literary translation. His

poignant criticism against the French translating tradition of extreme domestication ushered in the ethical turn in translation studies.

Berman was able to contribute to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the translation studies field in France thanks to his habitus as a literary innovator developed with his experience as a literary translator, as well as the symbolic capital of ethicality accumulated with his continuous criticism against the ethnocentric translation tradition in France. His peripheral position within the French field of translation studies also allowed him to stand against mainstream translation scholars. We, the author of the paper, also analyzed the social identity of ourselves to enhance reflective objectivity of this study.

▶ Key Words: Antoine Berman, Field, Habitus, Sociology of Translation Studies, Translation Studies

▶ 주제어: 번역사회학, 번역학, 아비투스, 앙투안 베르만, 장

이영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정교수

erasme@korea.ac.kr

관심분야: 번역개념사, 번역사회학, 번역비평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7일

수정완료일: 2021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2일